

광주 도심 중학생 82% 私교육 의존

학원·과외비로 상당수 月 70만~80만원 이상 지출

광주일보, 광주·전남 7개교 조사

광주 도심지역 중학생 10명 중 8명은 학원·과외·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 변두리 농촌지역이나 전남지역 중·소도시·농촌지역 중학생의 사교육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사교육도 도시와 그외 지역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일보가 광주 4개교, 전남 3개교 등 7개교에서 각각 1·2·3학년 1반씩을 표본으로 추

출, 모두 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조사' 설문 결과 드러났다.

조사 대상 학생은 광주 도심 내 위치한 D·W·S중 등 3개 중학생 329명, 광주 변두리 D중학생 78명, 전남 시 단위 J중, 군 단위 J·H중 등 3개 중학생 247명이다.

〈관련기사 3면〉

설문 조사결과, 광주지역 3개 중학생의 경우 1·2·3학년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329명의 82.1%인 270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 변두리 D중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 78명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55.1%(43명)으로 도심 중학교에 비해 크게 낮았다. 같은 광주지역 내이지만 도심과 농촌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 단위의 H중학교의 경우 57명 학생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15.8%(9명)에 불과했다. 학원에 다닌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 군 단위의 J중학교는 조사 대상 85명 중 62.4%인 53명이, 시 단위의 J중학교

는 105명 가운데 54.3%인 57명이 각각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는 학생 몇몇은 학원비와 과외비로 한 달에 70~8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학생의 44.5%인 109명은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도심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비중이 현저히 낮은 H중학생 중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학생 48명 중 16.7%(8명)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20.8%(10명)는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답해 농촌지역 학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교육은 물론 공부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태중기자 hwangtae@

'뉴욕 투자설명회' 기립박수 까닭은

“약속 지키자” 악천후 뚫고 투자유치 1,500km 대장정

자동차로 15시간을 달려 지켜낸 약속이 미국 기업인들을 감동시켰다. 미국을 방문 중인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미 대륙 1천500km를 횡단하는 한밤중 육로 대장정을 감행, 미국인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미국 기업인들은 대륙을 횡단해 온 광주시 투자유치단을 감격의 기립박수로 맞았다.

자문차로 15시간을 달려 지켜낸 약속이 미국 기업인들을 감동시켰다. 미국을 방문 중인 광주시 투자유치단이 미 대륙 1천500km를 횡단하는 한밤중 육로 대장정을 감행, 미국인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미국 기업인들은 대륙을 횡단해 온 광주시 투자유치단을 감격의 기립박수로 맞았다.

당초 투자설명회 예정 시간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사전에 투자유치단의 대륙 대장정 소식을 듣고 있었던 미국 기업인들은 이들을 뜨거워 기립 박수로 맞았다.

박 시장은 투자유치 설명회 인사를 통해 “악천후로 이곳까지 오는 길이 매우 힘들었지만 우리 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업인 여러분을 만나는 생각에 힘이 났다”며 “광주시에 투자할 경우

박광태 시장 등 광주시 투자유치단 비행기 못뜨자 車로 15시간 강행군

보았다. 투자유치단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뉴욕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다른 항공편을 찾았지만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다.

투자유치단은 긴급 회의를 가졌다. 투자설명회를 연기하지는 주장이 대세였다. 현실적으로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었다. 그러나 단장인 박 시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외국 기업인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집이었다.

뉴욕무역관 이종훈 과장은 “악조건 속에 약속을 지킨 광주 투자유치단의 행동으로 인해 광주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이곳 기업인들의 신뢰가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행사 진행을 도운 강성호 뉴욕육사민정청위원회 회장(전 뉴욕호남향우회장)도 “뉴욕 기업인들에게 신의를 보여준 광주시 투자유치단의 행동은 광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고 뉴욕 한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나라당 이효선 광명시장 '호남 비하' 발언 일파만파 “주민소환 추진”

한나라당 소속 이효선 광명시장의 호남 비하 발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경 호남향우회는 이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 적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효선 광명시장은 지난 12일 광명시 하안2동 순시중 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전임 시장의 인사와 관련, “전라도 놈들은 이래서 욱먹어”라는 요지의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호남향우회와 수도권 지역 호남향우회는 조만간 각 지방장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결과에 따라 사회전반에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짜릿한 스타일...섬진강 래프팅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휴일인 23일 곡성군 섬진강 래프팅에 참가한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물살을 저어 가고 있다. /곡성=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해양환경오염, 여수엑스포 최대 걸림돌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적조·양식장 문제 지적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개최지 주변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7~21일 한국을 방문한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사무총장이 2012년 엑스포 개최후보지인 여수 일대에 발생하는 적조 및 대규모 양식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지적함에 따라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전남도는 우선 가두리 양식장을 먼 바다 밑으로 끌어 내는 '외해 수중 가두리 양식장'의 확대와 하수종말처리

장의 대규모 증설 등 바다 환경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2012년 엑스포 개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모로코의 탕헤르는 유럽 왕족들의 여름휴양지로 이용될 정도로 환경과 경관이 뛰어난

관광 중심지여서 여수 지역 해양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지난 18일 만났던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여수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후보지 인근 해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적조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수산양식장 정비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위원 출마자 ▶5면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02-977-7390 FAX:02-977-4202

30대여성 80% 만족률 보유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IOPE